



제목	Turkish Myth and Muslim Symbol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Edinburgh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07. 11. 21.
저자	Carole Hillenbrand
출판도시	Edinburgh
페이지수	304
ISBN 또는 ISSN	978-0748625734

내용 요약

튀르크인들이 수세기, 아닌 천 년 이상 중동과 동유럽을 통치하면서 건재했다는 사실과 당시 그들이 차지한 영토가 아나톨리아 반도 전역으로 확장되었다는 사실은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키의 역사와 정체성, 그리고 세계사에서 터키의 위상 등은 종교적·민족적인 제한성으로 말미암아 이율배반적이 되었고, 서양에서는 터키의 과거 역사가 은폐되어 있었으며, 터키어 역시 아랍어와 페르시아어에 비해 과소평가되었다.

저자는 1071년의 만지케르트 전투에 초점을 맞추어 터키 역사에 학문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 만지케르트 전투는 1071년 8월 26일, 아르메니아의 만지케르트 근교에서 비잔틴 제국과 셀주크 제국 군대 사이에 벌어진 전투를 말한다. 이 전투에서 셀주크 군대가 비잔틴 제국의 저항을 완전히 무력화했는데, 말하자면 이 전투에서 승리한 셀주크 튀르크가 제국 출범의 신화를 쓰기 시작했던 것이다. 제1부에서는 만지케르트 전투에 대한 중세 무슬림의 해석과 관련해서 12세기부터 15세기까지의 사건을 설명하고, 제2부에서는 전투가 남긴 유산으로서 이슬람교의 확산과 기독교와의 대립, 그 과정에서 터키의 활약 등을 다루었으며, 튀르크 국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신화 만들기를 구체화한다.

만지케르트 전투 관련 자료 중에는 아랍어와 페르시아어로 작성된 것도 많이 있다. 이 책의 저자는 아랍어와 페르시아어 자료와 현존하는 이슬람 정보원 관련 자료를 번역하고 분석하여 이 책에 실었다. 또한 이러한 자료가 종교적인 이데올로기와 문학작품을 매개할 수 있다고 보고 현재 진행 중인 이슬람 터키와 기독교 유럽 간의 대립과 1923년 이래 터키의 근대국가 형성에 있어서 만지케르트 전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